

권오신의 문화산책

매헌 권사민의 시문학 (3)

梅軒 권士敏 詩文學

도체찰사(都體察使)에게 올리는 두루마리(上都體察使書) 글

도체찰사(都體察使, 西厓 柳成龍)에게 목숨을 걸고 올린 상소는 안진경의 서첩을 뛰어 넘는 문장으로도 평가되었다.

“모관 권사민은 마음을 가다듬고 도체찰사(都體察使, 西厓 柳成龍)인 상공합하(相公閣下)께 이 소(訴)를 올립니다. 영남에 침투한 왜적의 형세가 날로 횡포해져 고을마다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험악한 실정입니다.

임금(선조)은 의주로 행차하고 많은 사람은 흩어져 국가는 존망의 위함에 처해있고 군대는 한 달간의 양식도 없는 형편입니다.

듣건대 각 진(陣)의 장수들이 군보(軍保:군역을 면제해 주고 삼베나 무명을 받았음)와 아울러 납속(納粟:홍년이나 병란兵亂 때 백성들이 나라에 곡식을 받치는 일)으로 충당해 해서 혹 벼슬도 주고 군역도 면하게 하였습니

다. 비변사(備邊司: 임란이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군무까지 관할하는 중추기관)가 명령을 내려도 그 섬수가 너무 많아 비록 내려고 해도 그 납곡(納穀)의 수를 채우기가 어려워 웬말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즈음 울산 언양 등지의 적의 형세가 불꽃과 같이 치솟아 양민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변고는 한입으로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군사들이 굶주린 배로 적의 칼날을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견디다 못한 주장(主將)들이 이런 궁핍한 사정을 조정(朝廷)에 아뢰게 되면 이 틈을 써 넣지 않은 직접(직종의 공명첩空名帖)이다. 지방관이 일정한 양량의 곡식을 받고 상명을 써 넣어서 전달한다.)을 나누어 주면 한 뼘의 쌀을 얻으면 한사람 군인을 살리니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해가 더 커서 이미 주었던 직접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두려울 때는 나를 품에 두었다가 편안해지면 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저 믿음이란 임금의 큰 보배입니다. 착한 백성들은 칼날의 위세에 겁을 먹고 그 잔학함에 몸을 다쳐서 바람소리와까지 울음만 들어도 “왜적이 또 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잠시도 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면 어쩌할



육연서당

도리가 없어서 어린손자의 손을 잡고 적진에 들어간 노인을 바라보고도 서로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계사년(1593)어간엔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도 곡식을 더 심하게 거둬들입니다. 백성은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든 굶주림에 처해 있는데도 각 진(陣)에서 군보(軍保→군역대신 재물을 받는 부사)와 납속(納粟→나라에 곡식을 받치는 일)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은 이 서신에서 의병장으로 창의(倡義)했던 임진년에서 계사, 갑오년으로 이어지는 전쟁기간 민초는 금 한 덩어리로 곡식 한줌 사기 어려운 실정

가 감없어 적었다. 평안하고 일이 없을 때에도 상벌이 분명하고 삼가 하거늘, 하물며 적과 대치하여 자웅(雌雄)을 가리지 못할 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길이 생각하고 돌아 보건대 편안하면서

도 위태함을 잊지 않는 것이 고금으로부터 나라를 위하는 사람의 좋은 계획 일 것입니다. 저의 두려워하건대 조정이 호령을 내리면 백성이 이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자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매헌 선조께서는 일찍이 멀지 않은 시점에 정유재란이 터질 것을 이미 예상하시고 정유재란 발생 6개월 전쯤 이글을 남기셨다>

지금 도체찰사 상공합하께서는 나라의 대신이요, 백성의 부모이며, 조정에 들어가면 주공(周公: 고대 중국의 성인이자 조카 성왕成王을 보필, 주나라를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었다.), 소호(召虎: 주나라 선왕宣王 때 신하로 회이 땅을 평정한 공신)같은 분이시니 이와 같은 일에 반드시 잘 처리하실 것이므로 외람스러움을 무

릅쓰고 아뢰옵니다. 제 말을 잘 살피시고 여진 마음을 드러워 채택하여 받아들여 주십시오. 황공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삼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끝>

-선조 28년(1595년 9월 12일) 영남 지방 전시상황을 살피러 나온 도체찰사 서에 유성룡에게 올린 소로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상소였다. 여기서는 후세인들이 감탄하고 감탄한 두루마리 상소문의 뼈어난 문장력만 간추렸다.

당시 조선사회는 전시 상황이었지만 私利私慾에 눈이 먼 부패관리의 수탈이 극심했다. 점령지에서 한 때나마 민심을 얻으려는 왜적과는 달리 국에 달한 관리들의 수탈행위를 보고 참다못한 농민들이 맨 몸으로 저항하다 관에 끌려가 혹독한 고신을 당했다는 가하면 스스로 왜적을 찾아간 良民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 상소의 백미는 역시 매헌선조의 의기를 담은 명문장이며 전시戰時란 어둠을 비추는 한줄기 빛처럼 처음이나 끝이 한결 같았던 명문장이었다. 서애가 남긴 징비록에도 매헌 선조가 올린 당시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당대의 문장가 류영로(柳榮魯)가 쓰신 매헌실기(梅軒實記) 발문에서도 “공의 글은 전란속의 조정이 백성들에게 더는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격정하는 충의정신이 가득히 담겨 있었다고 적었다.

문장가 류영로(柳榮魯)는 “매헌의 이 소는 안진경(당나라의 정치가. 서예가)의 서첩(書帖)과 더불어 같이 세상에 남겨져 인간은 죽어 사라져도 그 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료이다.” 라고 덧붙혔다.

조선 500년 안동권문의 유일한 청백리 권빈

권빈(權賓, 경교공파 18세)은 조선 500년 역사상 안동권문의 유일한 청백리이다. 그는 세종 28년(1446)에 출생하여 성종 13년(1482) 문과에 급제하고 연산군 6년(1500)에 사망했다. 사망 후 종종 때 청백리로 복선 되었다. 1924년 강효석이 우리나라 역대 인명에 대한 전거를 기록한 전고대방(典故大方)에는 조선시대 총 216명의 청백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안동권씨는 딱 1명이다. 권빈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문리를 깨우칠 정도로 영특했다.

입에서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언변도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력도 대단히 뛰어났다. 성종은 이런 권빈을 “나의 봉황”이라고 할 정도로 아꼈다. 성종 17년(1486년) 승정원 등을 거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사헌부는 왕과 의정부 그리고 6조 고위관료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기관이었다. 때문에 사헌부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다. 문과 급제자 중에 청렴하고 강직하며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며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소신껏 직언할 수 있는 기개가 있는 인물만이 임명되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사헌부 권한 또한 막강했다. 고위직으로 승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였다.

사헌부 소속 관리들을 흔히 대관(臺官)이라고 불렀다. 대관은 무소불위의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소문만 들은 것으로도 고위관료를 탄핵할 수 있는 풍문거핵(風聞擧劾), 둘째는 자신이 주장한 것의 근거를 대지 않아도 무방한 불문언근(不問言根)이라는 특권이였다. 조선시대는 유교국가로서 왕도정치를 정치적 비전으로 내걸었다. 왕도정치는 물리적 힘보다는 말을 더 중시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체제를 지탱하는데 대관의 말은 왕도정치의 꽃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권빈이 임명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헌부 지평 권빈의 활약이 10여 건 등장한다. 직제학 정성근에 대해서는 세 차례나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 사사로온 훈인의 일로 왕래하면서 숙배(肅拜)했다는 이유였다. 숙배란 과거 합격자나 문무관직에 임명된 자들이 왕과 왕비 등에 절하고 사례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사사로온 훈인 일로 왕래하면서 숙배를 했으니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않고 법을 어긴 것으로 법에 의해 마땅히 법대로 처벌하라는 건의였다.(성종 20년, 1489년 6월 10일) 10여일 후에는 또다시 정성근에게 국문을 가해야 한다고 탄핵한다. 정성근이 규정을 어기고 감사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직한다고 아뢰고 이로 인해 탄핵을 받자 갑자기 그

만두었으니 반드시 국문해야 한다고 간한다.(6월 21일) 그런데 간단한 대로 왕이 국문하지 않자 일주일 후에 다시 추문할 것을 건의한다.(6월 28일)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의주목사 조속기는 사사로온 일로 서울에 왔다가 역마로 본가에 가기를 청했다. 권빈이 이를 모를 리 없었다. 공사(公事)가 아니면 대신이라도 역마를 탈 수 없는데 감히 의주목사 따위가 사사로온 일로 역마를 타겠다고 청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추문(推問)하기를 청한다.(1489년 6월 11일) 임금이 들어주지 않자 경국대전에 명시된 법을 위반한 이런 간행이 부은 신하를 가만히 두고 문책하지 않으면 뒷사람을 경계시킬 수 없으니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간언한다. 이제서야 뒤늦게 왕은 국문하도록 지시한다.

대관은 고위관료들을 감찰했다. 대신 손순효는 자기 일을 변명했다. 못 관리들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대신들의 말과 행동은 못 관리들이 본받는 법인데 손순효는 자기 일을 대충 변명하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다. 권빈은 대신으로서 손순효의 처신은 옳지 못하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넘어간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잘못을 본받을 것이므로 그 죄를 못지 않을 수 없다고 진언한다.(6월 16일)

권빈의 간쟁과 탄핵은 대신들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은 성종이었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통치체제를 확립한 그런대로 준수한 임금이었으나 권빈의 예봉을 빚겨갈 수는 없었다. 성종이 강무(講武)할 장소를 황해도로 정하자 권빈은 황해도도 풍기가 심히 악하고 또 중국 사신의 내용으로 역참으로 통하는 길이 지저분해서 다른 도로 옮길 것을 청한다. 그러자 임금은 “대관이 되면 사람마다 모두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하며 짜증을 낸다.(6월 13일) 그러나 권빈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대간으로서 소신껏 간언한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말을 굽힐 줄 모른다. 직선만이 있을 뿐이다.

일반 벼슬아치들은 또 어떤가. 안요경은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에서 첨정(僉正)으로 한 등급 승진한다.(7월 9일) 정견과 소사식은 6품에서 5품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권빈이 이 세 사람의 승진은 온당치 못한 인사발령이라고 탄핵한다. 이유는 이렇다. 이들은 문과나 무과 출신도 아니고 능력이 있거나 힘써 노력한 공적도 없이 승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의 승진은 불가하다고 탄핵한 것이다.(7월 16일)

이뿐만이 아니다. 임금이 밖에 나갔다가 환궁하는 길에 삼전포(三田浦)라는 곳

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임금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를 지어 올리라 하고 그때마다 별주를 내렸다. 그 중 이극중이 여러 번 잔을 받아 마시고 대취하여 손뼉을 치며 몸을 으쓱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몇번이나 춤을 추려고 했다. 이 광경을 보고 이극중이 취했다고 임금도 웃었다. 술자리가 과하자 권빈은 즉시 임금에게 달려가 이극중이 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실례(失禮)를 했으니 국문해야 한다고 간한다.(9월 3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는다. 원칙에 예외는 있을 수 없었다.

일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진주 사람 정은부는 무과에 합격하여 군관으로서 변방에 파견되어 국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정은부의 사촌 동생과 간통을 했다. 정은부가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쫓아 냈다. 그런데도 그 아내는 그대로 간통을 계속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여자의 어머니도 남편의 다른 삼촌 조카와 간통을 했다고 한다. 정보를 입수한 권빈은 왕에게 사헌부 감찰을 보내 철저히 조사하여(6월 28일) 문란한 풍속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간언한다.

권빈은 대관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 그러니 주변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는가. 그 여과는 성종이 승하하자마자 곧바로 닦웠다. 김산군수(오늘날 김천)로 좌천되고 만다. 김산군수로 6년여 동안 근무하는데 정사가 청렴하고 송사가 간명하여(신증동국여지승람) 고을 백성들이 생사당(生祠堂)과 유애비(遺愛碑)를 세워주었다.(안동권씨 족보)

권빈은 청백리였다. 청백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강직함도 지녀야 하고 구체적인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빈은 청백리답게 평생 울골으면서도 청렴하게 살았으나 무척 가난했다. 생을 마감했을 때 장사도 지내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 강귀손이 권빈의 장례를 치러주었다.(연산군 11년 6월 4일)

권빈은 안동권문 중 유일한 청백리였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안동권문에서조차 청백리 권빈을 잘 알지 못했다. 앞으로 권빈의 청백리 정신을 안동권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권빈에 대한 자료 발굴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묘소는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에 위치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정당한 역사 재평가는 ‘나’ 부터 시작됩니다.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의 국가행사 격상은 정당한 역사 재평가 육지의 권율이 있었기에 바다의 이순신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종친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1인당 100명 서명운동은 국가행사 격상의 초석이 됩니다.
가정, 직장, 동네, 동호회 등에 자랑스러운 권율도원수를 알리고 서명을 받으십시오.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